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보도 참고 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2026. 11. 11.(수) 08:01
보도 시점 (국제 엠바고) 배포 2026. 11. 10.(화) 14:00
(2026. 11. 11.(수) 석간)

디지털인공지능 경쟁력,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한 10위 기록

- 2026년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 세계 디지털·인공지능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-

- 한국, 인구 2천만 명 이상 32개국 중 미국·캐나다·중국에 이어 4위 -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(IMD)이 발표한 **2026년 세계 디지털·인공지능 경쟁력(WDAIR) 평가 결과*** 한국이 평가대상 **70개국 중 10위**를 기록, **전년 대비 8단계가 상승**했다고 밝혔다.

*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은 2026년부터 기존 '세계 디지털 경쟁력(WDCR)'을 '세계 디지털·인공지능 경쟁력(WDAIR)'으로 평가 체계·명칭 개편,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국가별 순위는 2022년부터 소급 적용

국가별로는 지난해 4위였던 **미국**이 **1위**를 기록하였고 지난해 1위였던 캐나다가 5위를 차지하였다. 아태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2위, **중국은 7위**, **일본은 19위**를 기록하였다. **한국**은 **전체 순위 10위**, **인구 2천만 명 이상인 32개국 중**에서는 미국, 캐나다, 중국에 이은 **4위**를 기록하였다.

분야별로 살펴보면 관리 체제(거버넌스), 기술 기반, 효율성, 인력개발, 가치행태 5대 분야에서 모두 작년 대비 순위가 상승하였다. 70개국 중 관리 체제 **분야**는 **27위**(34→27위), **기술 기반 분야**는 **3위**(7→3위), **효율성 분야**는 **3위**(13→3위)를 차지하였다. 또한 **인력개발 분야**는 **20위**(24→20위), **가치행태 분야**는 **16위**(19→16위)를 기록하였다.

관리 체제 분야는 정부 핵심 시스템 지수(신규)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관협력(59→35위), 법제화된 인공지능 정책(32→30위)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,

기술 기반 분야는 국내 총생산 대비 총 연구개발 지출에서 1위를 유지하였고 인공지능 논문에서 8위를 기록하였으며 벤처자본의 확보 용이성(46→35위)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상승하였다.

효율성 분야는 인공지능 도입 지수(신규) 8위, 국가 인공지능 전략의 이행(신규) 18위를 기록하였고 기업의 민첩성(46→20위)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,

인력개발 분야는 인공지능 준비도 지수(신규) 8위, 인공지능 교육지수(신규) 12위를 기록하였고 해외 고숙련 인재 유치(61→44위) 등의 지표에서 순위가 상승하였다.

한편, **가치행태** 분야에서는 시민의 인공지능 신뢰(신규) 10위, 기업의 인공지능 보안 위험 이해(신규) 25위를 기록하였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력(33→26위) 등에서 순위가 상승하였다.

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**"디지털·인공지능 경쟁력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8단계 상승**한 것은 **우리나라의 높은 회복력**과 **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**"라며

"앞으로도 **3대 초대형 사업(메가 프로젝트), 7대 미래 전략기술 사업(7대 SEED 프로젝트) 등** 디지털·인공지능 관련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**디지털·인공지능 경쟁력을 지속해서 개선**해 나가도록 하겠다"라고 밝혔다.

붙임 1. 2026 세계 디지털·인공지능 경쟁력 평가 결과
2. 세부 지표별 순위
3. 국가별 순위

담당 부서	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소라 (044-202-6220)
		담당자	주무관	김민기 (044-202-6214)

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·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

붙임1 2026 세계 디지털·AI 경쟁력 평가 결과

◆ IMD(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)은 '26년 세계 디지털·AI 경쟁력 순위를 11.11(수)에 발표(70개국 평가, **한국 10위**)

※ 연도별 순위 : ('22)**10위** → ('23)**9위** → ('24)**9위** → ('25)**18위** → ('26)**10위**

□ **(개요) AI·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한** 국가의 **적응력·대응력 및 기술개발 역량** 등을 평가

○ 5대 분야(거버넌스, 기술인프라, 효율성, 인력개발, 가치행태)·15개 부문·88개 세부지표로 구성

○ '26년부터 **세계 디지털·AI 경쟁력(WDAIR)**(구)디지털경쟁력(WDCR)으로 평가체계·명칭 개편*

* 종합·분야·부문별 '22~'25년 순위는 '26년 세계 디지털·AI 경쟁력 보고서의 비교계열 기준으로, '25년 당시 발표 순위와 구분됨

□ **(평가결과) 70개국 중 종합순위 10위로 전년 대비 8단계 상승, 인구 2천만명 이상** 32개국 중 **4위, 아·태지역** 15개국 중 **3위**

※ **미국 1위**, 지난해 1위였던 **캐나다는 5위**로 하락, **중국(7위)·한국(10위) 10위권 진입**, 홍콩(11위)·UAE(15위)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, **대만 13위**, **일본 19위**

○ **효율성 분야가 10단계 상승**(13→3위)하였고, 거버넌스, 기술인프라, 인력개발, 가치행태 등 **5대 분야 모두 순위 상승**

- **(거버넌스)** 정부 핵심시스템 지수(신규, 1위) 기록,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관협력(59→35위), 법제화된 AI 정책(32→30위) 등 순위 상승
- **(기술인프라)** GDP 대비 총 R&D 지출 1위 유지, AI논문 8위 기록, 벤처자본의 확보 용이성(46→35위) 등 순위 상승
- **(효율성)** AI 도입 지수(신규, 8위), 국가 AI 전략의 이행(신규, 18위) 기록, 기업의 민첩성(46→20위) 등 순위 상승
- **(인력개발)** AI 준비도 지수(신규, 8위), AI 교육지수(신규, 12위) 기록, 해외 고숙련 인재 유치(61→44위) 등 순위 상승
- **(가치행태)** 시민의 AI 신뢰(신규, 10위), 기업의 AI 보안위험 이해(신규, 25위) 기록, 새로운 도전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력(33→26위) 등 순위 상승

분야	거버넌스 (34→27위)			기술인프라 (7→3위)			효율성 (13→3위)			인력개발 (24→20위)			가치행태 (19→16위)		
부문	규제 체계	디지털 및 AI 거버넌스	공공 리더십	기술 기반	자본 및 AI 투자	연구 인프라	실행 여건	기업 민첩성	AI 도입	인재	교육 훈련	AI 준비도	사이버 보안 및 AI윤리	사회적 태도	신뢰
2026년	**33**	**28**	**19**	**11**	**22**	**3**	**13**	**3**	**6**	**51**	**7**	**20**	**15**	**19**	**21**
2025년	44	12	32	10	30	3	25	16	16	55	10	14	17	22	19

붙임2 세부지표*별 순위

* 세부지표의 '25년 순위는 당시 발표값 기준

< 거버넌스 > 34→27위

규제체계(Regulatory framework) (44→33)		디지털 및 AI 거버넌스(Digital&AI governance) (12→28)		공공리더십(Public leadership) (32→19)	
이민법의 외국인 고용 지원	63→36	AI 규제체계의 적절성	(신규)47	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관협력	59→35
과학연구 법제의 혁신 지원	44→46	기업의 AI 법규 준수 평가	(신규)47	정부 핵심시스템 지수	(신규)1
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	52→54	법제화된 AI 정책	32→30	공공서비스 전달 지수	(신규)1
정부 효과성 지수	(신규)19	개인정보 보호 법제 존재	10→15	법령 및 정부정보 공개	(신규)21
규제 품질 지수	(신규)28	전자정부	4→4	정부의 적법절차 준수	(신규)22
				세계 노동권 지수	(신규)46

< 기술인프라 > 7→3위

기술 기반(Technological framework) (10→11)		자본 및 AI 투자(Capital & AI investment) (30→22)		연구 인프라(Research infrastructure) (3→3)	
기업 요구를 충족하는 통신기술	24→24	IT 및 미디어 시가총액 비중	3→3	GDP 대비 총 R&D 지출	1→1
모바일 시장의 5G 가입 비중	11→23	AI 투자 인센티브의 적절성	(신규)36	인구 대비 R&D 인력	4→4
인터넷 사용자	11→11	기술개발자금의 확보 용이성	49→49	논문 기준 R&D 생산성	6→30
인터넷 대역폭 속도	12→13	벤처자본의 확보 용이성	46→35	첨단기술 특허 등록 비중	4→4
제조업 수출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	11→11	GDP 대비 통신투자	30→50	교육 및 R&D 분야 로봇	4→4
보안 인터넷 서버	42→25*	해외 경쟁사 대비 기업 AI 투자	(신규)18	AI 관련 특허 공개	3→3
		민간 AI 투자	10→12	AI 논문	28→8*

< 효율성 > 13→3위

실행 여건(Practices) (25→13)		기업 민첩성(Business agility) (16→3)		AI 도입(AI adoption) (16→6)	
영업허가 소요일수	한국값 없음	기업의 기회와 위협 대응	52→29	국가 AI 전략의 이행	(신규)18
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	(신규)2	기업의 민첩성	46→20	기업의 AI 도입 실행	(신규)12
정부 온라인 서비스	(신규)1	기업과 대학 간 지식 이전	40→49	도시의 AI 활용 서비스 개선	(신규)11
기술 개발과 활용의 법적 지원	55→55	세계 로봇 보유 비중	3→4	집단 간 AI 접근의 균등성	(신규)30
빅데이터 및 분석 활용	37→37	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	2→2	AI 도입 지수	(신규)8
		네트워크 준비도 지수	(신규)8		

* 보안 인터넷 서버·AI 논문 측정 기준 : ('25년)인구 규모 고려 수치 → ('26년) 인구 규모 보정하지 않은 국가별 총 수, 측정기준 변경에 따라 동일기준에 따른 전년 대비 순위 증감 비교에서는 제외

< 인력개발 > 24→20위

인재(Talent) (55→51)		교육훈련(Education & training) (10→7)		AI준비도(AI readiness) (14→20)	
PISA 수학 성취도	6→6	기업의 직원교육 우선순위	40→39	기업 수요를 충족하는 AI 스킬	(신규)21
경영진의 국제경험	58→58	중등교육 취학률	(신규)47	AI 일자리 대체 우려 대응	(신규)38
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관리	28→23	고등교육 이수율	5→5	기업의 AI 직원훈련 투자	(신규)18
디지털 기술 인력 확보	59→59	이공계 졸업자 비중	9→9	AI 준비도 지수	(신규)8
해외 고숙련 인재 유치	61→44	여성 고등교육 이수 비중	16→18	과학기술 분야 고용 비중	29→27
국제학생 순유입	34→35	AI 교육 지수	(신규)12		
여성 연구자 비중	57→59				

< 가치행태 > 19→16위

사이버보안 및 AI윤리(Cybersecurity&AI ethics) (17→15)		사회적 태도(Societal attitudes) (22→19)		신뢰(Trust) (19→21)	
기업의 사이버보안 대응	40→48	전자참여	3→3	기업 AI 시스템의 민감정보 보호	(신규)41
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	5→7	인터넷 소매판매	2→3	기업의 데이터 유출 대응절차	(신규)58
기업의 AI 알고리즘 편향 대응	(신규)26	태블릿 보유	47→46	시민의 AI 신뢰	(신규)10
기업의 AI 보안위험 이해	(신규)25	스마트폰 보유	8→16	국가 신용등급	17→18
책임 있는 AI 지수	(신규)32	세계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	35→37	국가의 해외 이미지와 브랜드	(신규)7
정부의 소셜미디어 모니터링**	(신규)11	새로운 도전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력	33→26	법치 지수	(신규)23

**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내용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범위를 평가하며, 모니터링이 제한적일수록 높은 점수

붙임3 국가별 순위

국가	순위			국가	순위		
	'25	'26	변동		'25	'26	변동
미국	4	1	3↑	오만	38	36	2↑
싱가포르	2	2	-	베트남	53	37	16↑
네덜란드	6	3	3↑	체코	31	38	7↓
덴마크	5	4	1↑	포르투갈	35	39	4↓
캐나다	1	5	4↓	요르단	43	40	3↑
스웨덴	7	6	1↑	카자흐스탄	37	41	4↓
중국	14	7	7↑	슬로베니아	44	42	2↑
핀란드	8	8	-	태국	40	43	3↓
스위스	3	9	6↓	푸에르토리코	41	44	3↓
대한민국	18	10	8↑	칠레	42	45	3↓
홍콩	9	11	2↓	인도	39	46	7↓
아일랜드	11	12	1↓	인도네시아	45	47	2↓
대만	12	13	1↓	키프로스	50	48	2↑
노르웨이	13	14	1↓	쿠웨이트	46	49	3↓
UAE	10	15	5↓	그리스	47	50	3↓
호주	19	16	3↑	헝가리	49	51	2↓
영국	17	17	-	크로아티아	54	52	2↑
독일	15	18	3↓	필리핀	56	53	3↑
일본	25	19	6↑	브라질	52	54	2↓
사우디아라비아	20	20	-	남아프리카공화국	59	55	4↑
프랑스	22	21	1↑	튀르키예	63	56	7↑
아이슬란드	16	22	6↓	슬로바키아	61	57	4↑
에스토니아	26	23	3↑	아르헨티나	55	58	3↓
오스트리아	23	24	1↓	케냐	65	59	6↑
리투아니아	21	25	4↓	불가리아	60	60	-
뉴질랜드	30	26	4↑	루마니아	51	61	10↓
말레이시아	34	27	7↑	콜롬비아	58	62	4↓
스페인	29	28	1↑	멕시코	57	63	6↓
벨기에	27	29	2↓	가나	64	64	-
카타르	24	30	6↓	페루	66	65	1↑
라트비아	36	31	5↑	보츠와나	62	66	4↓
룩셈부르크	28	32	4↓	몽골	68	67	1↑
바레인	32	33	1↓	나이지리아	69	68	1↑
폴란드	48	34	14↑	나미비아	67	69	2↓
이탈리아	33	35	2↓	베네수엘라	70	70	-

*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(음영표시) 32개국 중 4위, 아·태 15개국 중 3위